

전북대 · 호원대 전기 학위수여식

전북대 3847명 학위수여
김영일 천일주택 회장 명박
호원대 1240명 학위수여
만학도 졸업생 275명



전북대학교와 호원대학교는 22일 전기 학위수여식을 성황리 거행했다. 사진은 호원대 학위수여식 장면

전북대학교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 거행됐다.

이남호 총장을 비롯해 장명수·두재균·서거석 전 총장, 이용규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126명을 비롯해 석사 719명, 학사 3,002명 등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20년 가까이 금암장학회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온 김영일 (유)천일주택 회장이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사를 알리는 취타대 행렬로 시작된 졸업식은 좌석 사전 예약제를 시행해 많은 이들이 가족 및 인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졸업 축하 메시지를 담은 UCC 공모전을 통해 수작자들이 상영돼 졸업식 분위기를 돋웠다.

또한 대학 측은 사전 접수를 받아 정문 앞 전광판에 졸업생들에 대한 다양한 축하 메시지를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노출시켰고, 행사장 주변에 포토존도 설치해 졸업생들을 위한 많은 이들을 즐겁게 했다.

이남호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부

단한 노력과 외양과 내면의 조화, 겸손한 자세를 백절불굴(百折不屈), 문질빈빈(文質彬彬), 공신접수(躬身接水) 등 4자 성어로 표현하며 자신이 꿈꾸는 삶,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축하했다.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도 같은 날 호원문화체육관에서 제32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강희중 정은하원 이사장, 한준수 군산 부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서동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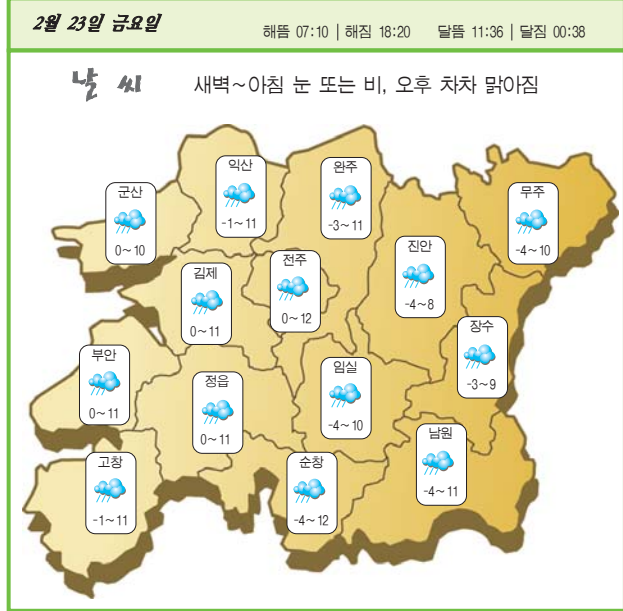
위자 총 1,240명을 배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공연미디어 학부 은일중 학생이 전체 수석으로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학부과별 수석자로 간호학과 오예진 학생 외 30명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취우들의 조면의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틈틈이 학업에 정진해온 결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행정학부의 안경순 씨가 68세의 나이로 최고령 졸업생 타이틀을 얻었으며, 이외에도 275명의 만학도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안경순 씨는 "자녀들 뒷바라지에 미웠던 학업을 늦게나마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학업을 응원해준 가족 및 동료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강희성 총장은 훈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지식과 경험을 연마하는 최선의 노력 끝에 영광스런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며 솔선수범하는 사회의 리더가 되어 호원대학교를 빛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주민참여 예산학교 23·24일 진행

희망자 100명 대상 동암교·도교육청에서

전북도교육청은 '2018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23일은 동암고등학교 등 8개 관공실에서, 24일은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참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직원, 도민 등 희망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평일반(23일) 및 주말반(24일)은 각각 4시간씩 진행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및 자체 예산결산제도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참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면서 "특히 전북 교육정책 및 재정 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 플랫폼 6곳 지정

전주시는 올해 시민들의 근거리 평생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평생학습 플랫폼을 지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총 6개 기관을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각 55회씩 총 330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내 주소를 둔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채유남 기자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도교육청, 지자체·소비자감시원과 3월 15일까지 400여곳 대상

전북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활동을 벌인다. 도교육청은 3월 15일까지 도내 학교 식생활관 330곳과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70곳 등 4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도교육청과 도·시·군 관계자, 소비자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해 9개 반으로 구성되며,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학교의 경우 식재료 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조리 음식 및 음용수(지하수), 식용유, 비가열섭취 식품 등의 수거 검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병행 실시한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가열 섭취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용수를 집중 점검한다. 이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한 반복 또는 상습적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학교 매점에 대해서는 고열량, 저영

양 식품 및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식생활관,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해 실질적인 위생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어린이 '금융 똑똑!! 경제 똑똑!!' 진행

전주 드림스타트-KSD나눔재단, 초등 5-6학년 20여명 대상

전주시와 KSD(한국예탁결제원)나눔재단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올바른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22일과 23일 전주지역 초등학생 5~6학년 어린이 2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어린이 금융 교육 '금융 똑똑!! 경제 똑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KSD나눔재단에서 전문 강사와 교구재 등을 후원받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계획적인 용돈쓰기 △경제 용어 익히기 △올바른 신용 관리 방법

등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용돈 관리와 신용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경제 교육이라 어렵고 재미없을 줄만 알았는데 보드게임을 하면서 돈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용돈을 아껴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채유남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